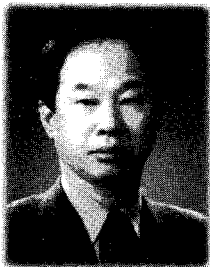


2002년도 에너지·자원 政策方向

김 동 원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2002년, 임오년 새해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해에도 에너지·자원업계 관련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업무종사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4년전 기업과 금융의 부실 및 보유외환의 부족 등으로 경제위기를 맞았으나, 정부의 일관성 있는 구조조정의 추진과 국민들의 뼈를 깎는 노력에 힘입어 지난 8월 IMF 채무를 모두 상환하고, 현재까지 847억불의 무역흑자와 1029억불의 외환보유고 및 528억불의 외국인투자 유치 등으로 성공적인 경제회복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에너지·자원분야는 석유비축물량을 6400만배럴까지 확대하고 천연가스의 전국 공급을 실현하며, 발전 설비 용량을 5000만킬로와트까지 확충하는 등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확충하였고, 지난 20여년간의 급격한 에너지소비증가 추세를 획기적으로 안정화시켜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로의 전환기반을 마련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에너지·자원의 각 분야 종사자들의 값진 땀의 대가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에너지 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진전으로 에너지 사용에 대한 국제적 환경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경제성장 본격화로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이 날로 격화되어 에너지수급 불안 심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경제 성장에 따른 깨끗하고 편리한 연료선호로 에너지수요의 고급화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며,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및 민영화로 에너지시장의 개방화, 국제화가 촉진될 것이며, 국민들의 환경의식 증대 등으로 에너지사용에 대한 환경적 측면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국제에너지 시장의 불안 정성에 흔들림 없는 에너지수급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 소비자구조의 합리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먼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및 국내외 자원개발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수급 안정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의 적정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석유·가스 등 각종 에너지 공급시설의 적기 확충과 원유 도입선의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발전설비의 지속적 확충과 수요관리사업의 확대를 통한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구조개편 등에 따른 전력수급의 안정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대륙붕의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등 전략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민간기업의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그밖에 에너지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고 월드컵 및 부산 아시안 게임 개최 등에 대비하여 에너지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소비구조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총수요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절약의 시설투자 및 공정개선을 추진하고 가정·수송 부문 등 부문별 에너지절약시스템을 강화하며, 소비자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에너지 소비문화를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체에너지 보급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해 대체에너지 보급기반조성과 경제성있는 대체에너지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진국의 의무부담 압력에 선발개도국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교토메카니즘 활용을 위한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여 국가에너지전략을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력산업의 도매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2단계 구조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구조개편에 따른 전기요금체계의 개편 및 전력수급안정대책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조속히 마무리하며, 석탄산업합리화 및 폐광지역 및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속 추진하는 등 석유·전력·가스분야의 시장기능 활성화 및 공정경쟁질서를 확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력 및 원자력산업 등 주요 에너지의 수출산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수입 및 해외자원 개발과 연계한 대응 수출노력을 강화하며, 자원보유국 및 주요 소비국과의 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해 「동북아 에너지협력체」의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자원보유국과의 협력위원회를 활성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업계·유관기관과 총화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맞추어 에너지·자원업계도 모든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임오년 새해를 맞아 우리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